

# 순천시의회 예결특위, 내년 본예산 주민지원금 증액 요구

## “코로나19·경기불황에 주민들 위한 예산은 없어”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순천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1조 3931억원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손준식 부시장의 제안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주민을 위한 행복 지원금 증액 요구가 화두로 떠올랐다. 내년도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며, 이를 지역 화폐 발행 등을 통한 주민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순천시 세입액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세출액을 뺀 여유자금으로

약 8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결위 김미연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합계 시기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민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내년 구정 즈음에 지급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날 요구한 증액 등에 대해 순천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 광양, 지방물가 안정 우수기관 선정

## 특교세 7000만원 확보

##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국내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안정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지방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 ▲명절맞이 전통시장 지역 물가 안정 민생현장 방문 ▲「광양시 착한가격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착한가격소 모집 및 지원 확대 등 서민가계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이번에 확보한 7천만 원을 이용해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을 준수하며 사업을 책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조순의 기자

# 순천시, 신대 중흥S-클래스 9차·10차 금연아파트 지정

순천시가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9차와 10차 아파트를 순천시 제10호와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중흥S-클래스 9차, 10차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노력으로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다양한 종류의 금연구역 안내판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3월 1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서로가 배려하는 금연 문화조성으로 이웃간 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응을 이끌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 곡성 농업인재활센터 이용자 7000여명... 농부증 치료 효과

## 그림순환시스템 운동기구 6종·의사 진료

곡성군이 ‘농업인재활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농부증(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농업인재활센터’가 지난 2월 재개소한 이후 11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7000여명의 집계됐다. 재개소 당시 이용객은 140여명이었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문객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농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의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운동 지도를 제공했다.

농업인 6명이 동시에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 내부에 그림순환 시스템 운동기구 6종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전문지도사를 통해 개인별 체중에 따라 맞춤형 운동량을 제공한 뒤 데이터로 보관해 운동 방법을 개선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농업인은 재활의학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와 운

동을 병행상담을 통해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결과 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완화됐으며 만족감을 보였다.

농업인재활센터 이용자 A씨는 “농업인재활센터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업인재활센터는 농민들의 고질병인 근골격계 질환, 일명 농부증 치료를 위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지만 올해 초 재개소 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고 농민들의 만족감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곡성=이성재 기자

# 보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 지역특산품·보성물 쿠폰·보성사랑상품권 등 총 72개 답례품 선정

보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72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보성군은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경쟁력과 지역 대표성·유통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군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몰’을 통해 답례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성몰 입점 업체(108개)를 대상으

로 ‘1업체 1상품’ 기준으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총 70개 업체에서 70개 상품(33개 품목)을 접수했다.

주요 답례품은 녹차, 키위, 꼬막, 녹돈 등 보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품 70개와 보성물 모바일 쿠폰, 보성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총 72개가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통한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을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부터 시

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지역균형발전과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매 문의 ☎ 061)780-8294